



풀무원, 파주 '평화의 숲' 가꾸기 활동

풀무원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일대 '풀무원 평화의 숲'에서 풀무원푸드앤컬처 임직원들과 함께 숲 가꾸기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풀무원 평화의 숲'은 풀무원이 2021년 (사)평화의숲과 함께 조성한 2400여 평 규모의 숲으로 파주 접경지역의 생태 회복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풀무원



HK이노엔, 히말라야 사트피크 원정대 발대식

HK이노엔은 경기 판교에 위치한 HK이노엔 스퀘어에서 대한산악연맹과 '2026 대한산악연맹 히말라야 사트 피크 원정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2026 대한산악연맹 히말라야 사트 피크 원정대'는 대한산악연맹 주창으로 오는 5월 10일까지 29일간 히말라야 미담봉 '사트 피크(해발 6220m)' 초등에 나선다. /HK이노엔



현대건설, 핀란드 대표단과 차세대 에너지 협력

현대건설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계동 본사에서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외교통상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핀란드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차세대 에너지 분야 협력을 모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이한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현대건설 주요 경영진과 빌레 타비오 장관,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 핀란드 대사 등 핀란드 주요 정부 인사가 참석했다. /현대건설



NH농협생명, 제38회 농축협 연도대상 개최

NH농협생명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제38회 NH농협생명 농축협 연도대상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도대상은 서로의 마음을 모아 함께 성장하고 협력한다는 '동심협력(同心協力)'의 가치를 담아 진행됐다.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노력이 하나로 모여 이룬 성과를 기념하고, 농축협과 NH농협생명이 함께 만들어진 조화의 숲을 콘셉트로 행사가 마련됐다. /NH농협생명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별세

보수진영의 대표 논객으로 활동해 온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9일 오후 1시49분께 별세했다. 향년 67세. 1959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신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4년 코리아타임스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1986년 중앙일보로 옮긴 뒤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등을 지냈다. 1998년에 이어 2006~2016년 논설위원으로 활약하며 기명 칼럼 '김진의 시사각각'을 통해 보수진영의 대표 칼럼니스트로 자리잡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역대급 무더위 온다'... 삼성, 에어컨 생산라인 풀가동

광주사업장 2월부터 생산 총력 AI 무풍 신제품 앞세워 수요 대응 빅스비·굿슬립 등 AI 기능 강화 이달 한달 구매고객 할인·캐시백

삼성전자가 역대급 무더위 예보와 2026년형 신제품 인기에 힘입어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하며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에 위치한 에어컨 생산라인을 지난 2월부터 풀가동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에는 한 달간 '에어컨 사전 점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며 무더위에 대비했다.

스탠드형 비스포크 인공지능(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와 벽걸이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 등 신제품도 내놨다.

2026년형 에어컨 신제품은 스탠드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와 벽걸이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 2종이다.



삼성전자가 다가오는 더위로 급증하는 에어컨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 했다. /삼성전자

신제품에 새롭게 적용된 'AI-모션 바람' 기능은 사용자의 위치와 공간 구조를 반영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정교하게 제어한다.

'AI-모션바람'은 ▲사용자가 있는 공간으로 바람을 바로 전달하는 'AI 직접' ▲사용자가 없는 방향으로 바람을 보내는 'AI 간접' 등 AI 기반으로 동작하는 바람 2종과 ▲순환 ▲원거리 ▲무풍 ▲맥스(Max) 등 일반 모션 바람 4종으로 구성됐다.

벽걸이형 신제품은 이에 더해 '상하' 바람까지 총 7가지 바람을 제공해 실내를 빠르고 고르게 냉방한다.

이외에도 ▲실내외 환경과 공기질,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냉방 방식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AI 쾌적' 모드 ▲공간의 습도까지 쾌적하게 관리하는 '쾌적제습'을 갖춰 실내 환경을 한층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디자인도 완전히 새로워졌다. 스

탠드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는 슬림한 바디와 폴 메탈 패널, 패브릭 패턴의 측면 디자인으로 공간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는 심플한 그리드 디자인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AI 음성비서 '빅스비'를 지원해 자연스러운 대화로 손쉽게 제품을 제어할 수 있으며 갤럭시 위치와 연동한 '웨어러블 굿슬립' 기능으로 사용자의 수면 상태에 맞춘 맞춤형 냉방도 제공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4월 한 달간 무풍에어컨 10주년 기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2026년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부터 '비스포크 AI 무풍 클래식', '창문형 에어컨' 등 삼성 에어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및 캐시백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이노비즈협회, 청년채용 지원기업 찾는다 세븐일레븐, 소상공인 동행축제 참여

기업에 年 최대 720만원 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2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노비즈협회는 본회를 비롯해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충북, 경남 등 전국 8개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총 4602명 규모의 배정인원을 운영한다. 기관별 배정규모

는 최소 300명에서 최대 800명이다.

이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다. 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일부 5인 미만 사업장도 별도 요건 충족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월 임금 450만원 이상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도약장려금 메뉴를 통해 지역을 선택한 뒤 해당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청년 채용 전에 사업 신청이 필요하며 이미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부 주관 소비촉진 캠페인 동참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2026 동행축제에 주요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유통사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소비캠페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며 "로컬에서 즐기는 모두의 동행축제" 테마로 지난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편의점 업계에선 세븐일레븐이 유일 참여한다.

세븐일레븐은 도시락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동행축제 대상 품목은 11찬도시락, 양반떡갈비&제육도시락, 반반제육&쏘야도시락, 고만할필요없는도시락 등 인기 도시락 4종이다. 모두 세븐일레븐



모델들이 세븐일레븐에서 동행축제 대상 품목을 소개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의 중소 파트너사 제조 상품이다.

세븐일레븐은 도시락 패키지에 동행축제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며, 해당 도시락 구매 고객은 스티커에 표기된 QR코드에 접속해 구매영수증 인증을 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세븐일레븐은 추첨을 통해 총 3400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선양소주, 7년 만에 계족산 맨발축제 재개

내달 계족산 황토길서 이틀간 개최

충청권 대표 향토기업 선양소주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제15회 선양 계족산 맨발축제' 재개최를 준비하는 가운데, 상설 공연 '뽀뽀한 클래식 숲속 음악회'의 2026년 시즌이 개막됐다.

2006년 첫걸음을 땀 이후 매년 수만 명의 발길을 이끈 지역 대표 축제 '선양 계족산 맨발축제'는 오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대전시 계족산 황토길 일원에서 펼쳐진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와 장동산림욕장 재정비로 휴식기를 가진 뒤 7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행사로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붉은 황토길을 맨발로 걷고 달리며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둘째 날인 5월 10일에는 세계



선양소주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제15회 선양 계족산 맨발축제'를 재개최한다. /선양소주

유일의 맨발 달리기 대회인 '선양 마사이 마라톤'이 열린다. 아프리카 초원을 맨발로 거침없이 누비는 마사이족의 걸음에서 착안해 이름 붙여진 대회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붉은 황토길을 달리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색 이벤트다. 참가자들은 발끝으로 자연의 감각을 느끼며 달리는 특별한 경험과 함께 색다른 성취감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유진그룹, 전사적 에너지 절감 캠페인

차량 5부제 시행 등 '4대 영역' 중심

유진그룹이 에너지 수급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다.

12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유진기업, 동양, 유진투자증권, 유진한일합섬, 유진호텔, TXR로보틱스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급변하는 대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그룹 내 에너지 절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각 계열사와 사업장별 운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실천 과제'를 발굴해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

무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캠페인의 핵심 방향은 ▲차량 운행 관리 ▲사무공간 전력 절감 ▲냉난방 적정 온도 유지 ▲기타 운영 비용 절감 등 4대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실천 사항으로는 차량 5부제 시행과 점심시간 소등, 미사용 PC 절전 모드 전환 등이 포함됐다. 또한 여름철 냉방 26℃ 이상, 겨울철 난방 20℃ 이하 유지 등 적정 실내 온도 준수를 통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무 효율화와 연계한 절감 방안도 병행한다. 전자문서 사용 및 화상회의를 확대해 종이와 이동 비용을 줄이는 등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김승호 기자